

새국토연구협의회
2007년 제2차 포럼
2007. 10. 22.

일본 농촌지역 개발주체에 관한 연구 -민관(民官)협동에 의한 마을 만들기의 실태 및 특징-

목 차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관련이론 검토
- III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의 실제

유학열 · 조영재 · 김정연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일본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위기와 고도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의 대응책 마련 등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안고 있다. 예전처럼 행정주도에 의한 개발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른 한편 농촌지역에서도 주민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며 가치관이 다양해지자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 나아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행정주도형 공공정책의 객체(客體)로서 여겨져 왔던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主體)가 되어 행정기관과 함께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마을 만들기(무라쥬꾸리: むらづくり) 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가할 수요와 필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오늘날 지역주민, 행정기관, NPO¹⁾, 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사이의 협동(연대)에 의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말부터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행정주도에서 지역주민주도로 하는 농촌지역 경영 방법과 주체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대, 자율, 창의에 기초를 둔 상향식·內發的(內生的)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박경, 2006:1). 또한 참여정부의 역점정책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방식으로써 ‘주민 주도형,’ ‘지역주민과 지자체간의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일본 농촌지역의 개발주체에 대한 관련이론을 검토한 후 지역주체 협동체제의 하나인 민관협동(民官協同)에 의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나가노현 오가와무라(長野縣小川村²⁾)의 사례로 그 실태 및 특징, 성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과정의 도입기에 드러난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 NPO는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로, 경상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시행을 계기로 급증하여 2006년 2월 현재 약 25,000개에의 NPO단체가 설립되어 있다.

2) 村은 일본의 행정구분 체계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면(面)에 가깝다.

II 관련이론 검토

1. 지역개발주체 개념 정리

농촌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지역주민 및 주민조직, 농협,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이익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지역개발주체는 이러한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김태곤, 2006:11). 여기서 지역주민은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그 개발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개발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볼 때 지역개발에서 핵심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정지웅, 1999:328). 또한 외부주체는 지역 내 주체 이외의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외부지역의 시민단체, 비영리조직 등이 있으며 이러한 외부주체는 농촌지역개발에 있어 재정적, 기술적, 전문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주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지역개발주체란, 일정지역에서 지역의 문제를 발견,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주민 또는 조직(집단). 행정기관, 기업 등을 말하며 이러한 주체들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발전정책에 있어 의사결정권 및 주도권이 주어지는 중핵적인 역할을 한다.

2. 일본 농촌지역 개발주체 변화

(1) 1960년대

-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개발주체.

(2) 1970년대~1980년대

- 행정주도, 행정의존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도시지역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함.
- 시민제안에 의한 마을 만들기(마찌쭈꾸리, 무라쭈꾸리)모델사업 실시.
- 일부 선진농촌지역에서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3) 1990년대

-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본격화
- 개발주체: 지역주민(지역사회)

(4) 2000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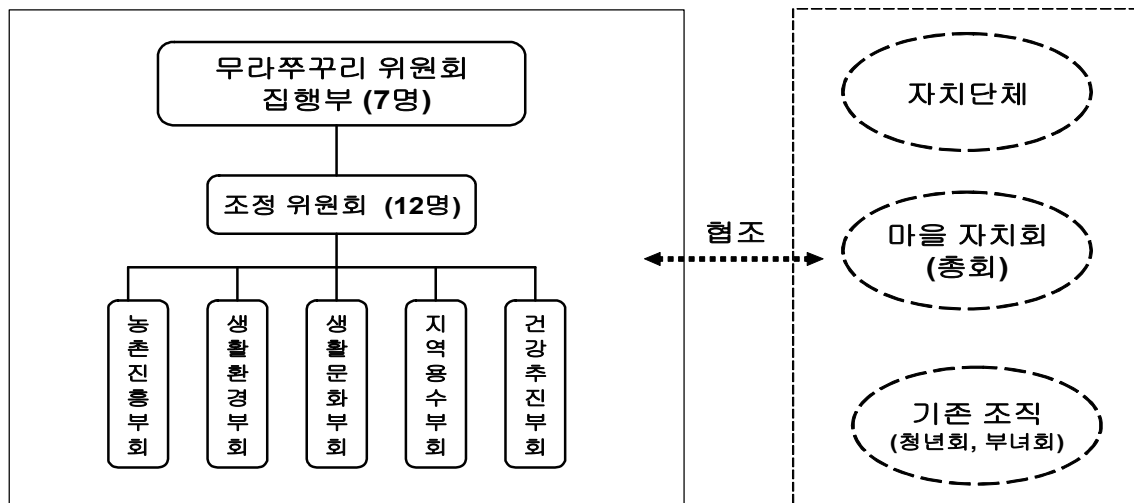
- 민관협동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주체간의(지역주민, 자치단체, 기업, NPO, 농협, 대학 등) 협동에 의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개발주체: 다양한 지역주체간의 파트너십

3. 일본 농촌지역 개발주체 유형

(1) 유형A - 단독형

1) 주민조직체 (주민주도형)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여 각종 마을 만들기(무라쥬꾸리)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에 의해 공통적으로 인식된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형태이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지역리더가 활발히 육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마을 개발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마을 총회(대동회)의 하부조직이 아닌 상부조직 또는 하나의 독립된 조직으로 결성되어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형태는 지역 내의 인적, 물적 자원만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 가능한 커뮤니티레벨(마을규모)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1, 사례지역: 滋賀縣甲良町北落集落).



주) 현지조사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

그림1 주민조직체에 의한 지역경영 형태

2) 기초자치단체 (행정주도형)

상기의 1)과 같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라는 독립된 주민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런 경우 지역주민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행정 측의 요구가 있을 때만 참여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얻기 어렵거나 자치능력이 뒤떨어진 지역에서 채택되고 있다.

3) 지역진흥지원형 제3섹터

지역진흥지원형 제3섹터란 일본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인 정·촌(町·村)레벨에서 지역 활성화 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공동사업체(地域づくり公社)이다. 대부분이 자치단체, 농협, 주민 등이 출자하여 만든 사업체이며 주로 하드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및 특산품 개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

(2) 유형B - 협동(연대)형

1) 지역주민 + 자치단체 (민관협동형)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행정과 지역주민의 새로운 관계로서 『민관협동(民官協同)』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민관협동이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자치단체)이 힘과 지혜를 모아 서로 도와가며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각종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양 주체가 협력하여 추진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일본에서는 「公民協働: こうみんきょうどう」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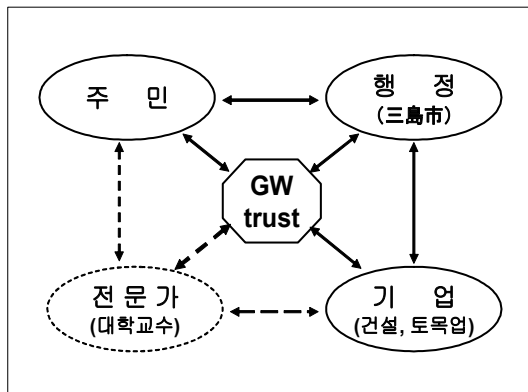
2) 지역커뮤니티(주민) + 행정 + 기업 + GW trust (groundwork 형)

Groundwork는 지역커뮤니티(주민)·행정·기업이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 지역재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며 1981년 영국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일본에서는 1994년에 「일본그라운드워크협회」가 발족돼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groundwork의 특징은 지역주체(주민, 기업, 행정)간의 파트너십이라는 개념과 이러한 시스템을 원활하게 기능시키기 위해 groundwork-trust 라는 민간의 공익단체가 설치된다는 점이다.(그림2, 사례지역: 静岡県三島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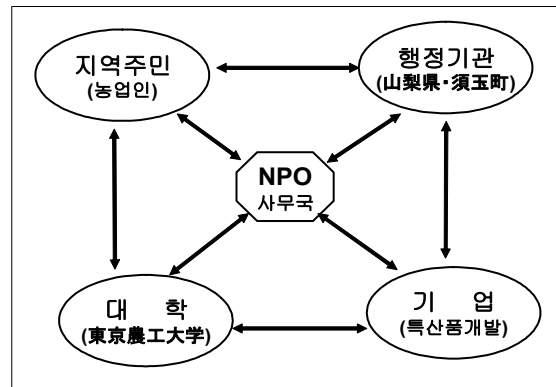
3) NPO (Non Profit Organization) + 주민 + 행정 + 기업 + 대학 (복합협동형)

NPO가 지역개발·경영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 행정기관,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한 연대를 통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최근에 들어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지역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NPO의 역할로서는 비영리분야의 management, 지역커뮤니티 재생, 시민들에게 새로운 자기실현의 장소 제공, 사회적 기업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그림3, 사례지역: NPOえがおつなげて).



주) 현지조사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

그림2 groundwork형 지역개발



주) 현지조사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

그림3 다양한 지역주체에 의한 지역개발

4. 민관협동(民官協同)의 원칙

(1) 상호이해의 원칙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은 서로 다른 입장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협동이라 함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民)과 관(官)이 상대를 서로 이해하는 상호이해라고 할 수 있다.

(2) 대등한 관계의 원칙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때는 민(民)과 관(官) 양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은 종래의 「행정의존형」·「행정주도형」에서 완전히 탈피하여야 한다. 양자는 상하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평한 수평적 파트너 관계로서 신뢰되어야 하며 공통의 목적과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의 대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3) 정보공개의 원칙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는 민(民)과 관(官)의 협조와 신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진행과정, 그리고 평가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양자 관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숨김없는 정보공개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5. 민관협동(民官協同)의 기본적 영역

주민과 행정 두 지역주체에 의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표4와 같이 각 주체의 사업 관여 정도에 따라 주민주체, 주민주도, 동등, 행정주도, 행정주체 라는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민관협동 영역은 주민이 주도하되 행정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인 ‘주민주도’, 주민·행정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동등 영역’, 그리고 행정이 주도하되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영역인 ‘행정주도’ 3영역을 가리킨다.

<주민 영역> ←.....		민관협동 영역	><행정 영역>
주민주체	주민주도	동 등	행정주도	행정주체
지역주민이 자발적,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영역	주민이 주도하되 행정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	주민, 행정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영역	행정이 주도하되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영역	행정이 단독적으로 책임을 지며 추진하는 영역
자치회활동 주민조직활동	보조금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	자치회와 행정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	행정사업의 위탁	법령을 따른 사회보장 사업 공공시설 관리

그림4 민관협동 영역

Ⅲ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의 실제

1. 조사대상지 개요

(1) 지리 및 인구

일본 혼슈(本州)의 중앙에 위치하는 나가노현(長野縣) 오가와무라(小川村)는 급경사지가 많고 평지가 적은 일본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오가와무라의 인구는 1950년에 약 9,500명에 이르렀지만 2005년 현재 1,257세대, 3,452명으로, 과거 50년간 약 3분의 1 수준까지 줄었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화비율은 약 40%이다. 이렇듯 오가와무라도 다른 농산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과소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표1. 오가와무라의 인구·세대수의 추이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인구	9,438	8,283	6,163	5,132	4,133	3,620	3,452
세대	1,639	1,628	1,520	1,391	1,314	1,295	1,257

오가와무라의 각 地區³⁾(이하, 마을이라고 칭함)에는 구(區)회⁴⁾, 청년회, 노인회, 부인회 등 다양한 주민조직체가 있으며 마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조직들이 대체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神樂」(가구라), 「引燈籠」(히끼도우로우) 등으로 불리는 전통문화가 마을별로 잘 계승되어 있는 편이다.

(2) 산업 및 토지이용

오가와무라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지만, 총 농가의 88.6%가 제2종 겸업농가이고 그 가운데 60.4%가 자급적 농가로 이루어져 있다. 농가 수는 전 세대수의 52.2%이고 농사일을 전담하고 있는 층은 60대, 70대로 대단히 고령화되어 있다. 토지이용 측면을 살펴보면, 약 65%가 산림이고 경작지는 14.6%에 불과하다. 산간지역인 관계로 경작지의 약 80%를 밭이 차지하고 논은 20%로 적은 편이다.

3) 地區는 우리나라 행정단위의 리(里)에 가까우며 오가와무라는 21개의 地區로 편성되어 있다.

4) 자치회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의 마을총회(대동회)와 비슷한 조직이다.

2.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의 추진배경

오가와무라(小川村)가 오늘날처럼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체계를 갖추게 된 배경은 오가와무라가 처한 노령화, 농림업의 쇠퇴,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등에 대하여 행정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같은 위기의식을 갖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2년에 실시된 오가와무라 촌장 선거에서 「주민주체 마을 만들기」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K촌장이 선출되었다. 그 후, 촌장은 전(全)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개혁 토론회를 열어, 대형 공공시설의 적자경영 및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마을운영 등 지금까지의 「행정주도형」 지역경영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앞으로 지역주민과 행정 어떻게 협력해 가면서 지역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 의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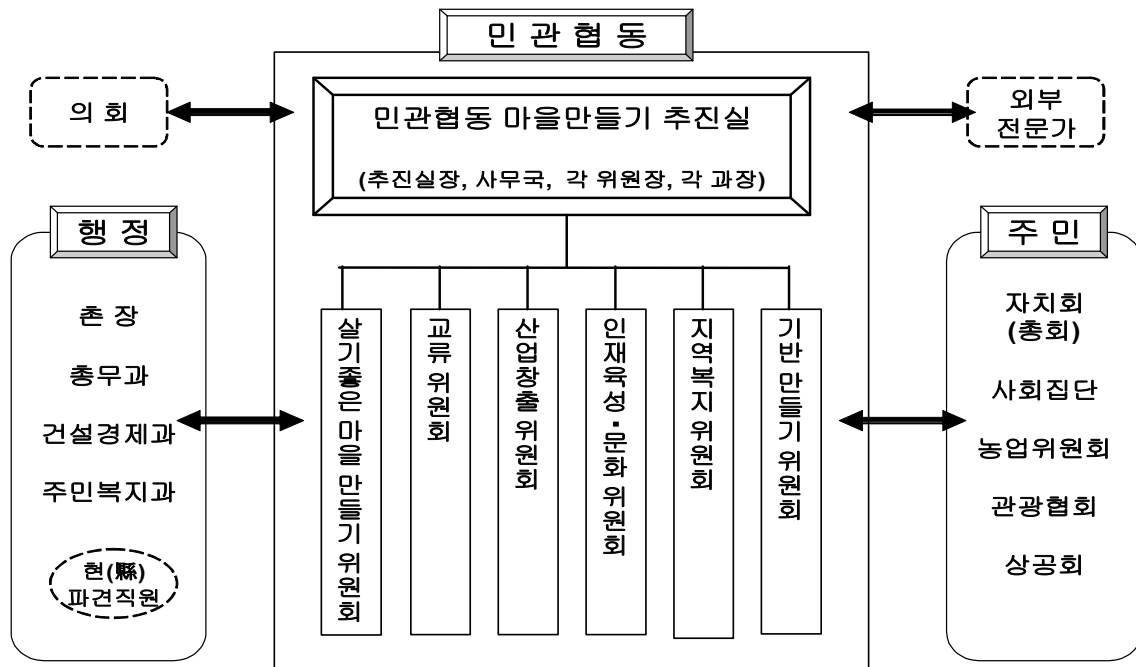
2003년 6월, 오가와무라의 21개 모든 마을에서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첫 단계로서 관(官)에 해당하는 행정 공무원이 21개 전(全) 마을에 파견되어 마을주민들과 여러 차례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열고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3.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추진 조직 및 절차

(1) 추진 조직

오가와무라에서는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직체를 결성하였다. 2004년 6월에 결성한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추진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 「산업창출 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명실 공히 민(民)과 관(官)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체이다(그림5).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추진실은 정·부실장, 각 위원회 위원장, 행정부서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필요에 따라 촌장, 의회, 주민, 외부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6개 위원회는 오가와무라에서 가장 절실히 논의와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분과 조직에 해당한다. 각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행정공무원과 마을주민들로 약 15~25명씩 구성되어 있고, 행정공무원과 마을주민의 구성 비율은 위원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위원회 위원은 응모제이며, 마을주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활동내용 및 구성원형태는 표2와 같다.



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그림5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를 위한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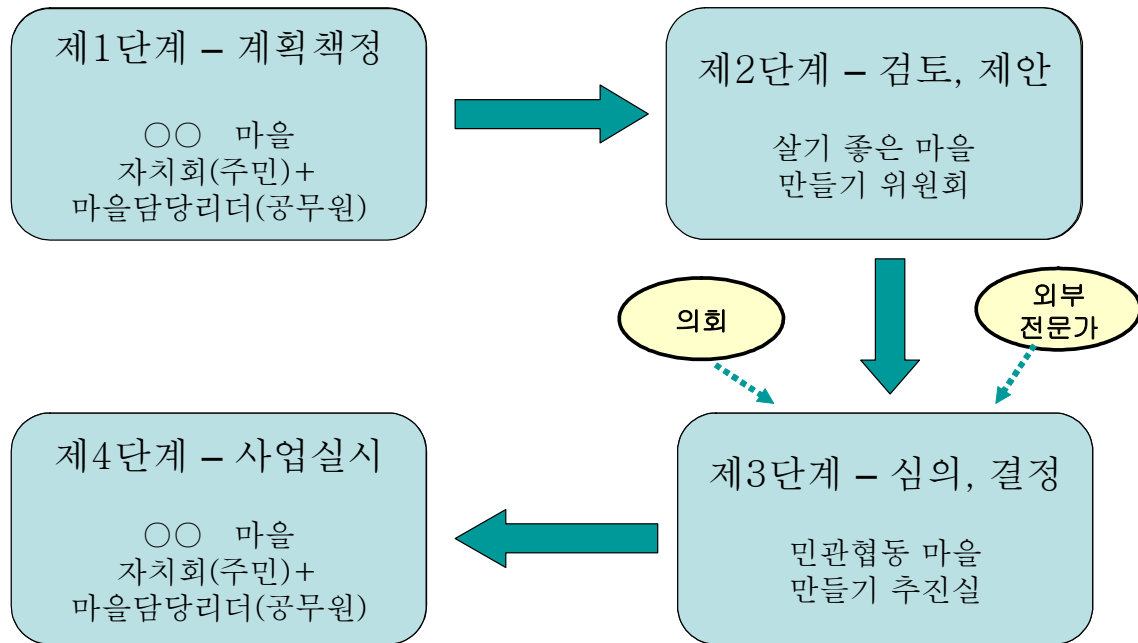
표2 각 위원회의 활동내용 및 구성원

위 원 회 명	활 동 내 용	구성원(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	마을단위의 마을환경정비, 삶의 질 향상	민(11) 관(4)
교류 위원회	주민교류, 도농교류, 출신자와의 교류	민(6) 관(9)
산업창출 위원회	특산품개발, 농촌관광개발	민(7) 관(11)
인재육성·문화 위원회	어린이교육지원, 아동공원건설, 문화재보전	민(10) 관(13)
지역복지 위원회	복지기업센터건설, 사회복지교육	민(14) 관(12)
기반 만들기 위원회	주민자치조직체지원, 주민역량강화	민(13) 관(4)

(2) 추진 절차

6개 위원회 중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자(그림6).

우선, 마을주민과 해당 마을 담당리더(공무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마을 만들기 계획안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 제출되고(제1단계), 제출된 계획안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계획안에 대해서는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추진실」에 제안한다(제2단계). 그 후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추진실」에서 최종 심의과정을 통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며(제3단계) 결정된 사업은 다음 해에 실시하게 된다(제4단계).



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그림6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추진 절차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04년부터는 몇 개 마을을 제외하고 전 마을에서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실시되었다. 표3은 2005년도에 실시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부 내용이다.

표3.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요내용

마을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엔)
오네야마(小根山)	메밀국수 체험	메밀재배 및 체험프로그램개발	30,290
시오자와(塩尺)	마을도로 정비	마을 간선도로 환경 정비	98,292
조와(上和)	휴경지 활용	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재배	45,000
기타오(北尾)	마을경관 정비	꽃길 및 꽃밭 조성	0
나쓰와(夏和)	마을공원 조성	마을입구에 공원 조성	340,000
조쥬(成就)	마을공원 조성	마을공터에 공원 조성	265,780
우에노(上野)	마을경관 정비	꽃길 및 꽃밭 조성	463,000
이나오까(稻丘)	반딧불마을 조성	하천 및수로 환경 정비	100,000
세도가와(瀬戸川)	마을경관 정비	꽃길 및 꽃밭 조성	158,865

4. 오가와무라의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특징

(1) 민(民)과 관(官)대표자로 구성된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추진실」이 행정기관 각 부서 및 각종 위원회보다도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실질적으로 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결정권한을 행정기관이 아닌,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추진실」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앞에서 살펴 본 민관협동 3원칙의 하나인 ‘민(民)과 관(官)의 대등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2)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 「산업창출 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에서 민(民)과 관(官)이 마을 만들기의 계획단계부터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자원을 발견하고,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논의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를 도모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진행과정, 평가관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양자 관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민관협동 3원칙의 ‘정보공개 원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마을 단위로 계획되었고, 실제로 예산을 뒷받침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오가와무라의 자체기금으로 충당하며 사업 성격상 필요하다면 縣 또는 中央政府의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

(4)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 공무원의 자주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은 조례, 규칙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오가와무라의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최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자주성을 최우선시 한다는 관점에서 역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그 사업내용에 필요한 ‘틀’을 설치한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5. 오가와무라의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 성과 및 과제

(1) 성과

1)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 사이의 불신 해소

오랜 기간 동안 오가와무라에서는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 간의 불신의 벽

이 높게 쌓아졌고, 누가 먼저 그 벽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행정기관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귀 담아 듣지 않았고 지역주민들도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일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民)과 관(官)이 서로 입장을 이해해가며 협동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금씩 양 주체간의 불신의 벽이 무너져가고 있고,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상호이해, 신뢰가 깊어지면 공공(公共)영역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지역경영이 가능하다.

2) 주민자치의식의 함양 및 주민혁신역량 강화

이전의 오가와무라 주민들 사이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면 행정기관 주도로 시행하는 것이며 주민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협조 의뢰가 있을 때 뚜렷한 의식 없이 그저 참가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었다. 이렇듯 「행정의존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익숙해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가 하게끔 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오가와무라 주민들은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토론회, 설명회, 학습회 등에 참석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자율적으로 참가함으로써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적극적, 자주적으로 마을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

3)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물론 행정기관 공무원들도 그동안 무관심 했던 자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문화, 음식, 축제 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지역에 있는 돌 하나 풀 한 포기에도 애정과 관심을 두는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공민협동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찾아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태곤·정기환·송미령. 2006.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간 비교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경·정재호·유정규·송두범·조수희. 2006. 「충청남도 농촌지역 리더육성 프로그램 실태 및 개발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윤원근. 2003. 「국토정책과 농촌계획 - 일본과 한국의 농촌계획제도의 비교」 보성각.
- 유학열. 2006. 「민관협동 마을 만들기의 실태 및 특징」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농촌마을종합개발 전문가과정 강의자료.
- 정지웅·임상봉. 1999. 「지역사회개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허장·정기환. 2002. 「농촌마을의 리더십 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千賀裕太郎. 1996. 「イギリスへのグラウンドワークと日本への適用」農村開発企画委員会. pp.43-56.
- 三橋伸夫·김준호. 1997. 「自治体とコミュニティにおけるまちづくりパートナーシップ」日本都市計画學會學術研究論文集. pp.235-240.
- 田村明. 1999. 「まちづくりの實踐」岩波文庫
- 藤本信義·三橋伸夫. 2000. 「行政·住民の協同による山村地域の振興方策に関する研究」日本都市計画學會學術研究論文集. pp.115-120.
- 岩田智. 2001. 「地域振興にかかわる第三セクターの最近の動向」農村計畫論文集. Vol.3 pp.109-114.
- 熊谷智義·廣田純一. 2001. 「市町村總合計畫における住民參加システムの評価」.農村計畫論文集. Vol.3 pp.247-252.
- 本庄宏行·三橋伸夫·藤本信義. 2002. 「まちづくりにおけるNPOとコミュニティ団体の活動連携に関する研究」農村計畫論文集. Vol.4 pp.97-102.
- 유학열·千賀裕太郎. 2002. 「住民主導型集落づくりの起動期の實態に関する考察」農村計畫論文集. Vol.4 pp.193-198.
- 小島康太郎. 2002. 「市民の自律的まちづくり提案活動を支援する情報提供に関する研究」日本都市計畫
- 김준호·三橋伸夫·藤本信義. 2003. 「NPOによる流域環境の保全と活用に関する研究」農村計畫論文集. Vol.5 pp.199-204.
- 粉川紀子·千賀裕太郎·유학열. 2005. 「中山間地域における公民協働むらづくりの實態と課題」農村計畫學會 學術研究發表會要旨集. pp.41-42.
- 粉川紀子·유학열·千賀裕太郎. 2006. 「長野縣小川村における公民協働むらづくりの實態と課題」農業土木學會誌. Vol.74. No.1 pp.23-26.
- 渡辺豊博·加藤正之·松下重雄. 2006. 「グラウンドワークによる地域參加のプログラムへの取組み」農村計畫論文集. Vol.25 pp.383-387.